

# 러시아 경기침체가 중앙아시아 주요국 환율에 미치는 영향

(2014. 11. 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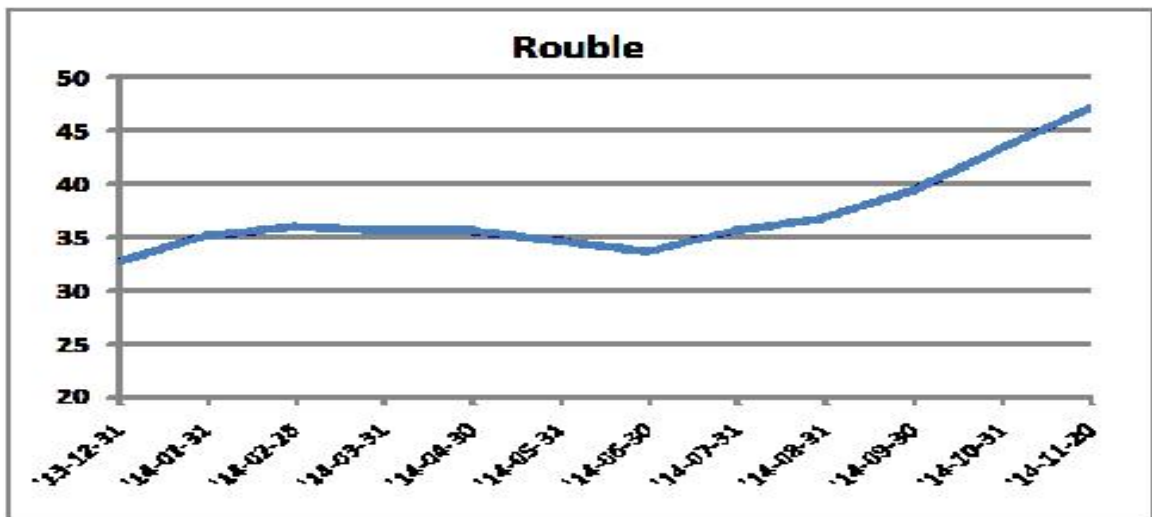
라슈켄트 사무소

## 1 | 개 요

□ 최근 러시아 경제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서방의 경제제재, 유가 하락 등으로 급속히 침체\*되고 있으며, 러시아 루블(Rouble)貨의 대 미달러 환율도 급격히 상승하고 있음.

- 11.20자 루블화 환율은 달러당 47.03으로 전년말 32.73 대비 43.7% 상승
- 러시아 중앙은행은 11월초 외환시장 개입을 제한(1일 3.5억 달러 이내) 하고 루블화의 자유로운 변동을 허용하는 조치를 단행

\* 러시아의 2014년 경제성장률 전망(IMF) : 당초 1.3% → 0.2% (△1.1%p)  
국제유가(브렌트油, 배럴당) : '13년말 109.95 달러 → '14. 10월말 85.86달러  
러시아 외환보유고 규모 : 연초 5,101억 달러 → 10월말 4,391억 달러



□ 이러한 러시아의 경기침체와 루블화 약세는 러시아와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중앙아시아 경제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금년들어 카자흐스탄 Tenge貨와 우즈베키스탄 Soum貨의 대 미달러 환율도 크게 상승하였음.

## 2

## 중양아시아 주요국 환율 동향

## (1) 카자흐스탄의 환율 동향

□ 카자흐스탄의 통화바스켓이 달러(70%), 유로(20%) 및 루블화(10%)로 구성되어 있고 러시아가 최대 교역상대국\*인 바, 카자흐스탄 텡게화(Tenge)는 전통적으로 러시아 루블화 변동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음.

\* 2012년 기준으로 러시아는 카자흐스탄 수출의 약 7%(non-oil 부문은 최대 수출 상대국), 수입의 약 36%를 차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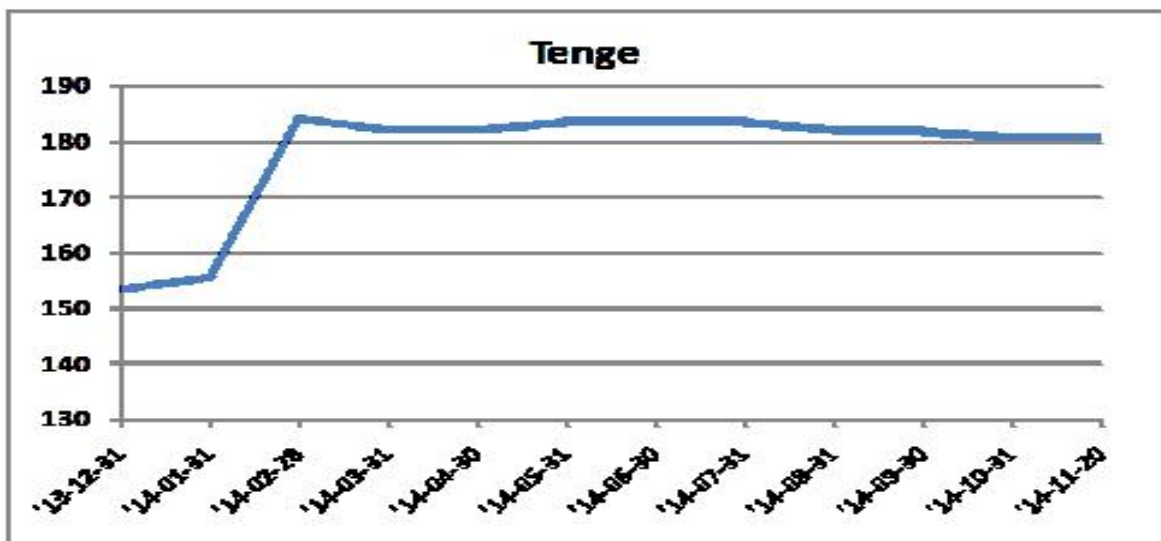
□ 카자흐스탄은 지난 2. 11자로 이머징마켓으로부터의 자금이탈에 따른 외환시장 안정, 루블화 약세에 따른 기업의 수출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 텡게화 가치를 약 19% 절하(달러당 145-155텡게→185텡게)하는 조치를 단행

□ 이후 정부 당국의 적극적인 환율 방어 노력 등으로 11월 현재까지는 환율의 큰 변동이 없는 상태임.

○ 지난 2월의 평가절하 이후 2-8월 기간중 텡게화 환율은 달러당 183텡게 이내 수준을 유지하였으며,

○ 9. 10자로 중앙은행이 환율 변동폭을 확대(달러당 185±3텡게 → 185 +3/-15텡게)한 이후 현재까지 달러당 180~181 텡게 수준을 유지

- '14. 11.20 현재 텡게화의 대 미달러 환율은 180.87로 전년말(달러당 153.61텡게) 대비 약 17.7% 상승한 상태임.



- 그러나, 최근 카자흐스탄과 러시아의 교역량이 크게 감소\*하고, 주요 수출품목\*\*인 유가가 급락하고 있어 **텅게화의 평가절하 압력이 점차 커지고 있음.**

\* 2014. 1-8월 중 양국간 교역량은 전년동기 대비 약 22.1%(27억 달러) 감소

\*\* 원유는 카자흐스탄 수출의 약 56% 차지

## (2) 우즈베키스탄의 환율 동향

- 우즈베키스탄은 외환관리가 엄격한 국가이며, 중앙은행이 **매주 1회 공식환율을 발표**하고 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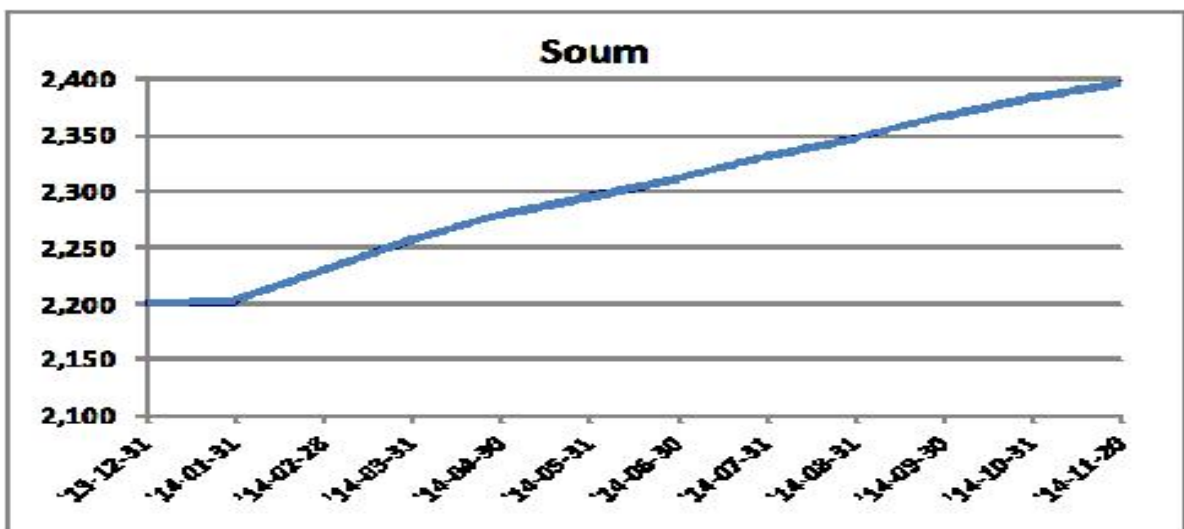
- 그러나, 외환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고 공식환율로 외화를 매입하는 것이 상당히 제한적이어서 **암시장이 널리 퍼져 있음.**

- 외환 암시장이 널리 퍼져있고, 암시장 환율이 공식환율 보다 높다는 것은 **숨화가 과대평가되었다는 것**을 의미함.

- 2014년 상반기 중 공식환율은 달러당 2,263숨(Soum) 수준인데 반해, 암시장에서는 30% 이상 높은 달러당 3,008숨 수준으로 거래

- 금년 들어 우즈베키스탄 숨(Soum)화 가치는 러시아의 경기침체, 자국민의 해외송금 감소 등으로 인해 **지속적인 하락 추세**에 있음.

- '14. 11.20 현재 숨화 가치는 달러당 2,396.79로 전년말(2,202.20) 대비 약 8.8% 하락



-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러시아의 경기침체 심화 및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카자흐스탄 텡게(Tenge) 및 우즈베키스탄 솜(Soum)의 평가절하 압력이 상존해 있는 상황임.

  - 카자흐스탄의 경우, 지난 2월 이미 대규모 평가절하 조치를 단행한 바 있어 추가적인 평가절하는 정치적으로 큰 부담이 될 것임을 감안할 때 정부가 추가적인 텡게화의 평가절하를 최선을 다해 막을 것으로 예상됨.

- 우즈베키스탄은 정부가 직접 환율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지속적이고 점진적인 솜화 약세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.
- 그러나,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환율은 러시아 경기 및 주요 원자재 가격 추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향후 동국의 환율은 결국 러시아의 경기침체 심화 여부, 유가 하락 등에 유동적일 것으로 전망됨. 끝.

(자료 : 러시아 중앙은행, 카자흐스탄 중앙은행, 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, EIU, Wall Street Journal, Reuters, Global Risk Insight 등)